



Web Contents



2024년 05월 08일 14시 38분

50년 만에 만나는 이를 강강수월래

2016.02.26 조회수 86 등록자 김경숙

목포박물관이 이렇게 번듯하게 자리잡은 것도 모르고 살았다니요.

"1960년대 학생동인 강강수월래"

그 이름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

이렇게 가슴 뛰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.

그때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?

[글쓰기](#)[목록](#)

이전글
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`사진 강좌 오픈`

다음글
인사말씀 '나의 이야기' 공모에 임하여

MokPo - Si
Web Contents

